

KBA 회장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4. 3. 28(토)~29(금)
- 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르 메르디앙 호텔
- 참석자 : 회장단 및 사무국 총 12명

KBA회장 이욱현, 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최성재 지점장,
포스코 유럽사무소 임창희 전무, 스위스 지상사협의회 이승근 회장
스웨덴 한국상사협의회 심상보 회장, 프랑스 한불상의 김종호 회장
벨기에 한국경제인협회 신승규 회장, 주간무역기자 김종운
허문구 사무국장, 정희철 부장, 김문성 사무차장, 윤준호 인턴

□ 회의내용

- KBA회장 이욱현
 - 본 회장단회의에서 회비 및 회칙을 의결코자함
 - 회비와 관련하여 두 가지 案을 마련. 제1안은 일반회원 1,000유로, 회장단 2,000유로, 제2안은 교민기업인 일반회원은 500유로, 지상사 일반회원은 1,000유로, 교민기업 회장단은 1,000유로 지상사 회장단은 2,000유로로 제안. 2안의 취지는 교민기업은 지상사 보다 영세하여 회원 저변 확대를 위해 교민기업에 낮은 회비를 부과하는 방안
- 허문구 지부장
 - 회비의 목적은 회원사들의 Loyalty를 제고, 친목단체 수준에서 벗어나 조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외부지원에서 벗어나 KBA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하기 위해 회원사 회비는 매우 중요

- 벨기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승규
 - 기존 친목단체인 KECEU를 해체하고 이익단체이자 로비단체로 KBA를 설립. 교민기업이라고 하면 영세한 한인기업이 많을 텐데 이들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가? 그들은 KBA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김중호
 - 영세한 한인기업은 서비스가 필요 없으면 가입하지 않을 것. 강제할 필요는 없으나 가입을 막을 필요도 없음
 - 회비관련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특별회원(대기업) 2,000유로, 일반회원(일반기업) 1,000유로, 개인회원(개인 및 소규모업체) 500유로로 하고 있음
 - KBA 회비도 1·2안을 아울러 결정하면 어떤가?
 - 프랑스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불상공회의소와는 달리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KBA는 그 성격이 다를 것임. 과연 유럽 각국의 현안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

- KBA 사무국장 허문구
 - Business Europe이 롤모델이며, KBA 회원수가 많을 경우 EU 기관 및 유럽 각국 정부에 대한 압력은 크기는 다를 것임
 - 회원·회장단 회비에 차이를 두지 않더라도 친목단체 성격에서 벗어나 실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회원가입제가 필요

- 벨기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승규
 - 지사마다 가입할 것인가 유럽본부 하나만 가입할 것인가?

- KBA 사무국장 허문구
 - 본부만 가입하게 되면 밑에선 관심이 없게 되니, 법인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 벨기에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신승규
 - 그렇다면 회칙을 바꿔서 개별적으로 가입 하도록 해야 함 (KBA 회칙 4조 1항 나 참고)

-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김중호
 - 단체의 경우, 단체이름으로 가입할 건지 개별 회원으로 가입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해야함. 이 경우 회비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반발 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KBA 사무국장 허문구
 - 개별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집중적인 KBA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ex. KBA로펌으로 부터의 컨설팅, 호텔체인할인, 인턴 우선과견 등). 단체일 경우 이런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김중호
 - 단체가입에 대한 회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강제할 경 우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KBA회장 이욱현
 - 현실화 될 것 같지 않던 EU결성 및 단일통화가 이룩되었듯, KBA 도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각 국가별로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음. 당연직은 거절하면 그때 가서 회원명단에서 뺄 수 있음. 프랑스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지만 對EU 차원에서의 노력은 필요. 단체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하고, 단체회원중 부회장으로서 KBA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단에 들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비 부가하는 안은 어떤가?

- KBA 사무국장 허문구
 - 이미 있는 특별회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특별, 단체 회원 으로 구성돼야 함

- KBA회장 이욱현
 - 단체회원은 특별회원으로 등록하고, 단체회원이 회장단에 들어올 경우 회비를 내는 것이 어떤가? 정회원은 개별회사가 될 것이고 당연히 회비를 내도록 함

- 포스코 유럽사무소 전무 임창희
 - 회비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 가서는 연결이 끊길 수밖에 없음

- KBA회장 이욱현
 - 정회원->일반기업, 경제단체->특별회원(회비 없음) 다만 경제 단체가 회장단이 될 때는 회비지급
 - 경제단체가 특별회원으로도 가입을 거부하면 그렇게 하도록

- 스위스 지상사협의회 회장 이승근
 - 경제단체인 특별회원이 발언권을 위해 회장단이 되면, 그 경제 단체에서 또 회비를 십시일반 하여 내야 할 것

- KBA사무차장 김문성
 - 그렇게 되면 회원수 카운팅은 어떻게 하나?

- KBA사무국장 허문구
 - 대외적으로는 경제단체 회원 포함하여 공표, 내부적으로는 정회원 수를 카운팅

- 스웨덴 한국상사협의회 회장 심상보
 - 상사협의회가 발달돼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음. LG전자는 회비를 세 번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부회장 단, 특별회원, 개별 정회원)

- KBA회장 이욱현
 - 본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회비 결정을 위한 투표실시

- 거수투표 결과 제1안 2표, 제2안 : 6표로 제2안이 채택됨

		일반회원	회장단
제2안	교민기업	500 유로	1,000 유로
	지상사	1,000 유로	2,000 유로

- o KBA사무차장 김문성
 - 회비중 창립시와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즉, 외부지원금 (산자부 + 협회) 심의 및 의결과 회비결산에 대한 심의 2원화
- o KBA회장 이욱현
 - 회비는 회비 낸 사람들이 심의하고 지원금은 회장단에서 심의하는 취지
- o KBA사무차장 김문성
 - 회칙의 회장 선출 관련 제 12조 1항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문구 삽입
- o 포스코 유럽사무소 전무 임창희
 - 회칙 제 2조, 유럽전체 한인단체를 아우르는 상급, 포괄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 o 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최성재 지점장
 - 사무국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부회장단에 보낸 다음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할 것
- o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김중호
 - 기타의견으로 회칙 11조 4항에서 과반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1/4 정도 출석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 회비를 1,000유로로 못 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 1000유로 이상’처럼 해 두

는 것이 좋을 듯

o KBA회장 이옥현

- 11조 4항 과반수 참석 문구는 지적과 같이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인정되므로 사무국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서면 승인 받겠음
- 회비와 관련하여 김중호 회장의 지적대로 '특정금액 이상'으로 명시하기로 함

.이상.